BRIEFING

Vol. 220
2026. 10. 15

발행처 대전연구원 **발행인** 최진혁 **발행일** 2026. 10. 15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1)]

이형복 공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대전 맨발걷기길 조례는 마련되었으나 기준은 없는 상태로, 확산 과정에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선제적 개입 시점

최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수요가 확대되면서 공원·녹지를 활용한 생활형 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2024년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2024.2.16. 제정)를 통해 각광받고 있는 맨발걷기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25년 현재 총 15개소, 33.3km의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자치구 및 사업별로 조성공법과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비효율적 예산 집행 가능성 또한 누적되고 있음

서울(2024.10.)·인천(2025.4.)·경기(2025.2.)가 확산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과 달리, 대전시는 기술기준 없이 양적 확산기에 진입한 만큼 지금은 사후 정비단계가 아니라 확산 과정 중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선제적 개입 시점임

국내외 맨발걷기 관련 연구와 법령·조례·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대전시 적용 쟁점을 도출하고, 5개 자치구 18개 맨발걷기길을 대상으로 6개 부문 53개 문항의 현장조사를 실시,대전시민 338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만족도, 신규 조성 및 관리 요구 등을 조사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기준의 표준화·추진과정의 단계화·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종합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맨발걷기길은 황토 산책로가 아니라 생활권 공공서비스

맨발걷기길은 황토라는 특정 노면재료를 포설한 산책로가 아니라, 입지선정·시설조성·안전위생관리·시민참여가 결합된 생활권 공공서비스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 조례들이 맨발산책로를 시설·운영·안전·위생을 포함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과도 부합함

국내 가이드라인_ 서울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 인천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매뉴얼」,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수립 주체와 기술적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으나 안전과 유지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한다는 공통점을 지님

국외 사례_ 독일 바트 조베른하임 맨발걷기길(1992), 에게스토르프 맨발공원(2008) 등은 크나이프(Kneipp) 요법 등 지역 치유 전통과 결합한 콘텐츠, 가족·노약자 대응 순환형 옵션 코스, 세족장·신발보관함의 입구 집약 배치, 시즌제 운영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조성 이후 운영단계까지 설계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임

국내외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사업 확산과 함께 표준과 원칙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확산 국면에 진입한 대전시가 지금 기본계획과 기준 정립에 착수해야 하는 근거가 됨

1) 이 글은 2026년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그림 1. 대전시 맨발걷기길 홍보물

현장실태조사: 물리적 조성은 양호, 관리·운영은 취약

노면·배수(A), 안전·동선(B), 편의시설(C), 접근성·무장애(D), 위생·환경(E), 관리·운영(F)의 6개 부문 53개 문항으로 도심공원형 8개소, 산림형 2개소, 완충녹지형 8개소 등 18개소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함

(조성은 양호) 18개소 중 17개소가 총 달성률 60% 이상을 기록하여 노면·배수·접근성 등 기본 조성상태는 일정 수준 확보됨. 민간위탁으로 상시 관리체계가 작동하는 계족산 황톳길이 90.6%로 가장 높고, 은평근린공원(90.4%)·중촌근린공원(89.8%)이 뒤를 이음

(관리는 취약) 관리·운영(F) 부문의 평균 달성률은 36.0%로 6개 부문 중 최저이며, 관리예산 편성은 5.6%, 토양 안전성 검사(E-7)는 18개소 전체에서 미실시로 달성률 0%임. 고위험군 이용 주의 안내(35.3%)와 세족장 설치(47.2%)도 대표적 취약요인임

(기능상실 노선) 2014~2015년 조성 이후 약 10년간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년4가–둔산대공원3가 구간은 총 달성률 22.4%(노면·배수 0%, 관리·운영 6.3%)로 맨발걷기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진단됨

관리 수준의 격차는 개별 대상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맨발걷기길을 독립적인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행정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는 조례 정비와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임

표 1. 대전 맨발걷기길의 공간유형별 현장실태조사 진단결과

공간유형	조사대상	주요 진단결과 및 정책과제
도심 공원형	8개소 (은평·중촌·죽동·엑스포근린공원 등)	• 물리적 조성 부문 81~93%로 양호, 관리·운영 부문은 평균 38.3%(12.5~62.5%)에 그침 • 엑스포근린공원은 안전·동선 55.0%, 편의시설 50.0%, 관리·운영 12.5%로 부문 간 불균형 최대 – 신규 조성보다 관리체계 고도화, 대상지별 취약부문 기준 정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산림형	2개소 (계족산 황톳길, 무수동 치유의숲)	• 계족산 황톳길은 노면·배수, 편의시설, 접근성 100%, 관리·운영 75.0%로 전 부문 균형 잡힌 우수사례 • 무수동 치유의숲은 안전·동선 45.0%, 관리·운영 12.5%로 원거리 산림형의 안전 인프라 취약 – 낙상·토사유실·응급대응 지연에 대응하는 강화된 안전시설과 점검기준 적용 필요
완충 녹지형	8개소 (서구 완충녹지 8개 구간)	• 접근성·무장애 부문 대부분 100%로 생활권 접근성 우수 • 편의시설은 상위 대상지도 50% 미만, 관리·운영은 6.3~50.0%로 전반적 취약. 선형 녹지 특성상 세족장·신발보관함·급수시설 설치공간 확보에 구조적 제약 – 인접 토지이용에 따른 구간별 관리기준 및 인근 공원시설 연계 대체방안 마련 필요

그림 2. 도심공원형 HEATMAP

그림 3. 도심공원형 각 공원별 레이더 차트

시민 인식조사: 높은 관심과 낮은 지속이용의 공존

(관심은 높으나 이용은 짧음) 맨발걷기길 인지도 87.6%, 경험률 85.8%, 신규 조성 시 이용 의향 78.0%에 달하였으나 현재 지속 이용률은 30.8%에 그쳤고, '해본 적 있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이용 중단자가 55.0%로 나타남

(노면 품질이 만족도를 결정) 불만족층의 55.0%가 노면 상태(토사유출·균열·질퍽거림)를 지목하여 노면 품질이 만족도의 최우선 변수로 확인됨. 세족장은 필요도 92.9% 대비 설치율 47.2%로 필요와 공급의 격차가 가장 큰 시설임

(공급과 수요의 공간적 불일치) 이용의 60.8%가 계족산 황톳길에 집중되고 이동수단의 64.9%가 자가용인 반면, 시민의 50.3%는 도보 15분 이내 접근을 요구하여 광역 거점 편중형 공급과 생활권 근린형 수요 간 불일치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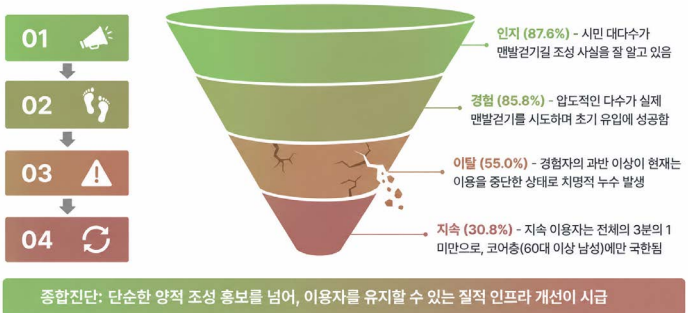
(세대별로 분화된 수요) 희망 유형은 산림형(46.7%)·근린공원형(23.1%)·완충녹지형(14.5%) 순이나, 60세 이상은 도보권 근린공원형 비중(27.6%)이 가장 높고 18~29세 청년층은 폭염·혹한기에도 사용가능한 실내 온실형 수요(20.7%)가 상대적으로 높음

(참여 기반은 확고) 시민의 84.9%가 유지관리 참여 의향을 보여 시민참여형 운영의 사회적 기반이 확인되었으며, 고령층·자영업자·은퇴자에서 참여 의향이 특히 높음

표 2. 대전 맨발걷기길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항목	결과	시사점
인지도 경험률	87.6% 85.8%	정책 인지와 체험 기반은 이미 폭넓게 형성
신규 조성 시 이용 의향	78.0%	잠재수요는 충분, 관건은 지속이용 전환
현재 지속 이용률 이용 중단	30.8% 55.0%	노면 품질 회복 없이는 이탈 반복
불만족 요인 1순위(노면 상태)	55.0%	관리 중심 전략의 근거
세족장 필요도 설치율	92.9% 47.2%	표준 설치기준과 대체방안 마련 시급
계족산 이용 집중 자가용 이동	60.8% 64.9%	광역 거점 편중, 생활권 노선 공급 필요
도보 15분 이내 접근 요구	50.3%	생활권 15분 노선을 신규 공급 원칙으로
유지관리 참여 의향	84.9%	노선별 시민관리단 구성의 사회적 기반

그림 4. 대전 맨발걷기길에 대한 시민인식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교차 검증한 결과, ① 시 차원의 표준화된 조성·관리 기준 부재, ② 시설조성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비한 관리·운영 체계, ③ 토양 안전성 검사 전면 공백 등 위생·안전의 사각지대, ④ 공간유형별·관리주체별 관리 격차와 기능상실 노선의 방치, ⑤ 확고한 시민수요에 비해 낮은 이용 지속성과 생활권 수요와 불일치하는 공급구조의 다섯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

대전형 맨발걷기길 비전과 조성·관리 기준체계

『생활권 녹색공간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고 함께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대전형 맨발걷기길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권 건강활동 기반 확충,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시민참여형 운영 정착, 대전형 도시브랜드 구축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시설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생활권 접근성·이용자 안전·자연환경 보전·지속가능한 관리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함

그림 5. 대전 맨발걷기길의 공간 구성

공간유형 구분_ 노면재료나 시설 외관이 아니라 입지조건·핵심 위험요인·관리방식에 따라 산림형, 도심공원형, 완충녹지형, 수변형의 4개 기본유형과 기후·계절에 대응하는 실내·온실형 특화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핵심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차등화된 조성·관리 기준을 적용함

3단계 기준 위계_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필수기준(노면 안정성, 배수, 보행동선, 위험안내, 관리주체, 우회동선), 공간과 관리여건이 확보된 경우 적용하는 권장기준(세족장, 신발장, 휴식시설, 조명, 위치표지), 이용수요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선택기준(체험노면, 족욕시설, 건강측정·스마트 계측시설)으로 구성하여 획일적 시설 확충과 관리부담 증가를 방지함

입지선정 원칙_ 신규 조성보다 기존 산책로와 자연토 구간을 우선 조사하여 최소 정비로 활용하는 기존 공간 활용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지·정류장·공원 출입구와의 연결성, 평탄·완만한 지형, 토질과 배수조건, 관리근거와 담당부서(공원·녹지·산림·하천)의 정합성을 종합 평가함

관리·운영 기준_ 관리주체와 시설관리번호 지정, 예방적 점검체계, 계절·기후별 운영기준, 기록관리를 포함하며, 관리주체와 운영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개장을 유보하는 원칙을 명시함

정책제언: '시설을 만드는 사업'에서 '안전한 이용상태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대전시 맨발걷기길 정책은 신규 조성 중심의 확장 전략이 아니라 기존 노선의 품질 회복과 관리체계의 제도화를 우선하는 관리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섯 가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① **5개년 기본계획과 통합 조성·관리 매뉴얼 수립:** 기본계획은 기존 노선 진단, 생활권별 수요 분석, 우선 정비대상 선정,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를 담는 실행계획으로 하고,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유형별 기준·노면 및 배수·안전위생·점검·시민참여·기록관리의 최소기준을 포함. 신규사업 예산심의 시 관리주체, 연간 운영비, 운영 중단·폐지 기준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

② **유지관리의 제도화:** 연차별 유지관리 예산의 별도 편성, 정기 점검주기와 항목의 명문화, 점검 결과의 정비 우선순위 연계, 시·5개 구청 협의체계 구성 및 인프라 조성 중심의 자치구 조례를 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형으로 정비

③ **위생·안전 최소기준 도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체계를 준용한 토양 중금속 검사의 정례화·공개, 당뇨병성 발 합병증 등 고위험군 이용 주의 안내와 우회로 정보를 표준 문안으로 전 노선에 게시, 이용밀도를 고려한 세족장 표준 설치기준과 인근 공원시설 연계 대체방안 마련

④ **노선 등급화 평가와 재편절차 도입:** 정기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존치·재정비·폐지를 판단하는 행정절차를 제도화하고, 만년4가–둔산대공원3가 구간과 같은 기능상실 노선은 재정비가 곤란할 경우 폐지 후 일반 녹지로의 환원도 배제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적용

⑤ **생활권 중심 공급구조로 전환:** 계족산 황톳길은 관광정책과 연계한 광역 거점으로 고도화하되, 신규 공급은 근린공원·완충녹지를 활용한 도보 15분 생활권 노선을 원칙으로 하고 서구·유성구를 우선 검토하되 동구·대덕구의 형평성을 보완. 유성구 봉명동 유휴 족욕체험장의 황토족탕 리뉴얼을 특화사업으로 제안

⑥ **시민참여형 운영 거버넌스 구축:** 위생 점검·시설 보수·안전관리는 행정의 전문관리 영역으로, 시민참여는 일상 노면관리·현장 모니터링·이용문화 캠페인 등 보완적 영역으로 설계하고, 노선별 '(가칭)맨발걷기길 시민관리단'을 조직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제보체계를 운영. 자원봉사 시간 인정, 활동 확인서, 소액 활동비·관리용품 지원 등 유인체계 병행

– 약 200여 명의 시민회원이 노선 발굴·현장조사·주민참여예산 제안을 거쳐 조성을 이끌어낸 탄방남선공원 황톳길 사례는 시민참여 기반의 조성절차와 주민 자율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우수사례

표 3. 대전 맨발걷기길 정책제언과 핵심과제

정책제언	핵심 과제	근거
기본계획·통합매뉴얼	5개년 기본계획, 조성·관리 최소기준, 예산심의 시 관리주체·운영비 제출 의무화	시 차원 표준기준 부재, 구별·사업별 공법·관리방식 상이
유지관리 제도화	연차별 유지관리 예산 별도 편성, 점검주기·항목 명문화, 시·구 협의체계	관리·운영 부문 36.0%, 관리예산 편성 5.6%
위생·안전 최소기준	토양 중금속 검사 정례화·공개, 고위험군 안내 게시, 세족장 표준기준	토양검사 0%, 고위험군 안내 35.3%, 세족장 설치율 47.2%
등급화·재편절차	정기진단 기반 존치·재정비·폐지 판단, 기능상실 노선 녹지 환원	만년4가–둔산대공원3가 구간 22.4%
생활권 공급구조	도보 15분 생활권 노선 원칙, 서구·유성구 우선, 동구·대덕구 형평성 보완	계족산 이용 집중 60.8%, 도보 15분 접근 요구 50.3%
시민참여 거버넌스	노선별 시민관리단, 행정·시민 역할 분담, 자원봉사 인정 등 유인체계	유지관리 참여 의향 84.9%, 탄방남선공원 시민제안 사례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으로 연계 시, 광역 거점과 생활권 노선을 결합한 대전형 선도모델 구축

본 연구의 조성·관리 기준(안)과 정책제언이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길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계된다면, 대전시는 계족산 황톳길이라는 광역 거점과 생활권 근린 노선을 결합한 대전형 선도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현장실태조사표(6개 부문 53개 문항)를 정기 점검기준으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단에서 기준 정립까지 일관된 실행형 관리체계를 갖추고, 건강·환경·시민참여를 통합하는 건강도시·녹색도시로서의 정책역량을 대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민참여의 시민참여형 운영 거버넌스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계절별 반복조사를 포함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체 노선 토양 중금속 실측조사, 이용자 건강효과 실증연구, 기본계획 단계의 단위사업별 재정계획 수립 등의 후속 연구 필요

1

2

3

1. 죽동근린공원 / 2. 은평근린공원 / 3.남선공원